

# 은행의 ELS 판매 관련 제도개선사항 및 발표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- 매일경제 6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## 1. 기사내용

- 매일경제는 6.10일 「ELS 등 금융투자상품 은행, 전용창구서 판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  - “은행 점포에 예·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‘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’를 개설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다. …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 ‘고난도 금융투자상품’ (원금 20%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) 취급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.”
  - “금융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‘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’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…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.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2. 상기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최근 은행이 판매한 주가지수연계증권(Equity Linked Securities: ELS)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
- 재발방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금융위원회<br>금융소비자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   | 김수호 (02-2100-263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 | 박성빈 (02-2100-2524) |
|       | 금융위원회<br>은행과      | 책임자 | 과 장    | 이진수 (02-2100-295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   | 김영근 (02-2100-2951) |
|       | 금융감독원<br>은행감독국    | 책임자 | 국 장    | 정우현 (02-3145-802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은행제도팀장 | 김은성 (02-3145-8030) |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